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교육문화



124 학교 현황

초등학교는 감소, 대학교는 지속적 증가

126 유치원

보육 시설 늘어나 부모 부담 감소

128 초등학교

학교와 학생수는 감소 추세지만 교육여건은 개선되었어요

130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있어요

132 고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등 다양하게 나타나

134 공공도서관

도서관!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다

136 문화재 현황

도심 속 가까이 향유하는 문화

학교 현황

1965년 **438**개
2015년 **829**개
89.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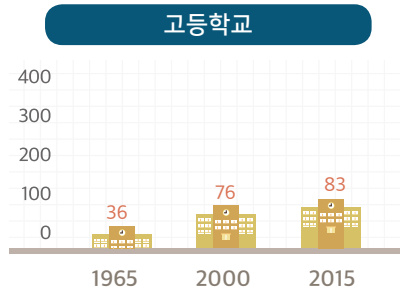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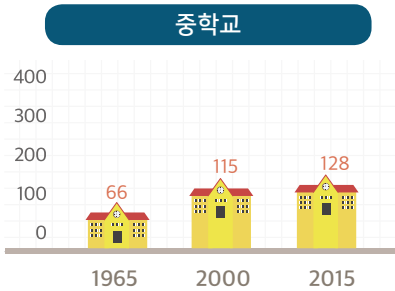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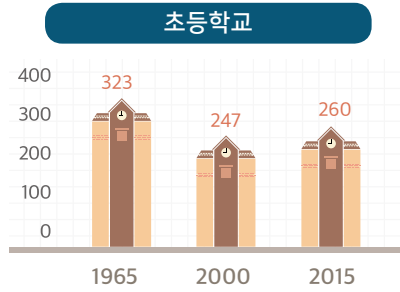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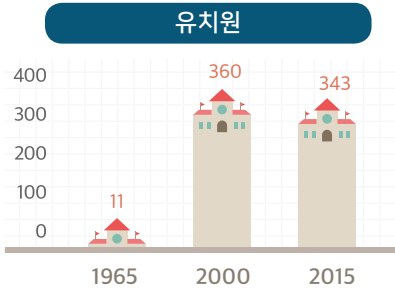
초등학교는 감소, 대학교는 지속적 증가

도내 학교 현황은 집계가 처음 시작된 1965년 438개에서 2015년 현재 829개교로 8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 가운데 유치원 343개교(41.4%), 초등학교 260개교(31.4%),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 128개교(15.4%), 고등학교 83개교(10.0%),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 5개교(0.6%), 대학교 10개교(1.2%)로 나타났다.

도내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성장율을 나타낸 것은 유치원으로 무려 3,018%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초등학교는 오히려 8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촌 소규모학교의 폐교 등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1980년대 충청대와 청주 간호전문대(현 한국교통대로 합병)가 개교한 이래 5개교로 확대되었고, 4년제 대학의 경우 에도 충북대, 청주대와 함께 1970년대 수도여사대(청주사범대로 개칭되었다가 현 서원대로 개칭)가 개교한 이래 10개교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치원 3,018% 증가

1980년 이전까지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1980년대를 지나면서 유치원 원아수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단위 : 개교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
1965	438	11	323	66	36	-	2
1970	515	10	372	87	43	-	3
1980	599	30	397	105	62	2	3
1990	895	375	337	109	67	3	4(1)
1995	874	393	283	114	73	5	6(1)
2000	812	360	247	115	76	6	8(1)
2005	815	347	252	123	79	6	8(1)
2010	835	346	259	132	83	5	10(1)
2013	825	341	259	127	83	5	10(1)
2014	830	344	259	128	84	5	10(1)
2015	829	343	260	128	83	5	10(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 대학의 ()는 분교수로 전체수에 미포함

※ 학교 수 계산시 분교, 폐교 제외, 교원수는 정규교원(휴직교원 포함) 및 기간제 포함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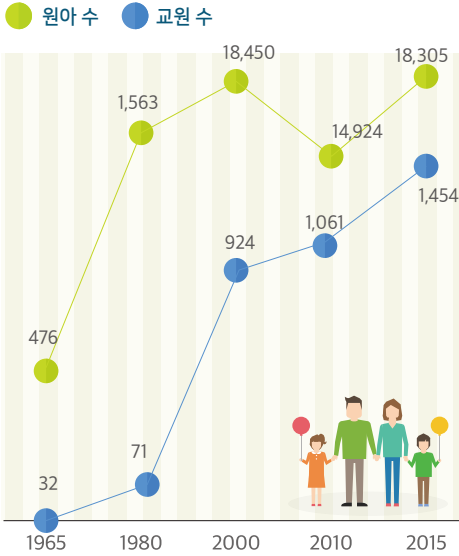
유치원 **343**개
원아 **18,305**명
교원 **1,454**명



보육 시설 늘어나 부모 부담 감소

도내 유치원 수는 1965년 11개에서 2015년 현재 343개로 무려 31배 증가하였고 원아수도 476명에서 18,305명으로 38배 증가하였고, 교원수도 32명에서 1,454명으로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수도 12개 교실에서 1,022개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특성상 여성 교원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1965년 31.3%에 달하던 남성 교원 비중이 1980년 19.7%, 1990년대 6.5%, 2015년 현재 2.1%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14.9명에서 12.6명으로, 학급당 원아 수는 39.7명에서 17.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위 : 개교, 명, 개

구분	유치원수	원아수		교원수		교원 1인당 원아수	학급당 원아수	학급수
		계	여	계	여			
1965	11	476	204	32	22	14.9	39.7	12
1970	10	440	205	33	23	13.3	27.5	16
1980	30	1,563	703	71	57	22.0	35.5	44
1990	375	16,458	7,801	520	486	31.7	27.2	606
1995	393	18,461	8,751	869	819	21.2	25.8	715
2000	360	18,450	8,788	924	904	20.0	25.6	722
2005	347	16,298	7,855	955	939	17.1	21.8	747
2010	346	14,924	7,254	1,061	1,037	14.1	18.6	801
2011	344	15,317	7,416	1,073	1,051	14.3	18.7	819
2012	344	16,792	8,087	1,168	1,138	14.4	19.2	873
2013	341	17,446	8,351	1,297	1,272	13.5	18.5	943
2014	344	17,489	8,504	1,439	1,405	12.2	17.9	978
2015	343	18,305	8,849	1,454	1,423	12.6	17.9	1,02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학교 수 계산시 분교, 폐교 제외, 교원수는 정규교원(휴직교원 포함) 및 기간제 포함

초등학교

초등학교 **260**개
학생 수 **85,2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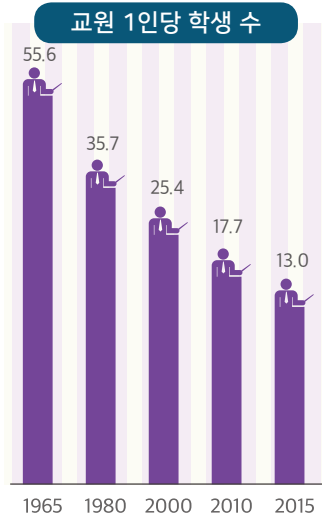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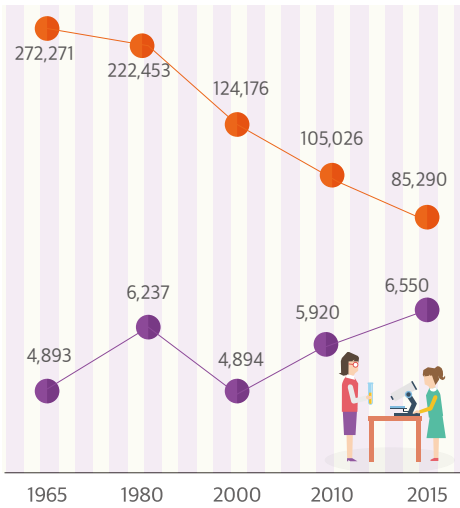
학교와 학생수는 감소 추세지만 교육여건은 개선되었어요

2015년 현재 도내 초등학교는 260개, 학생수 85,290명, 교원 6,550명, 학급 수는 4,24교실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인구감소와 이농향도의 영향으로 농산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교 수가 1965년보다 19.5%가 감소하였으며, 학생수도 68.7%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55.6명에서 13.0명으로 감소하였고, 학급당 학생수도 60.7명에서 20.1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 교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65년(23.6%), 1970(25.1%), 1980(29.6%), 1990(35.3%), 2000(58.3%)로 여초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2015(71.5%)를 나타내 3/4이 여성교사로 나타났다.

● 학생 수 ● 교원 수



단위 : 개교, 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계	여	계	여			
1965	323	272,271	128,385	4,893	1,153	55.6	60.7	4,488
1970	372	310,348	148,117	6,043	1,514	51.4	56.4	5,505
1980	397	222,453	108,341	6,237	1,848	35.7	40.8	5,449
1990	337	153,273	74,653	5,353	1,887	28.6	34.7	4,416
1995	283	122,589	58,919	5,158	2,125	23.8	31.8	3,859
2000	247	124,176	58,307	4,894	2,851	25.4	32.0	3,878
2005	252	126,588	59,778	5,508	3,600	23.0	29.6	4,277
2010	259	105,026	50,112	5,920	4,244	17.7	25.5	4,115
2011	260	99,902	47,681	6,296	4,533	15.9	23.2	4,297
2012	259	94,507	45,134	6,384	4,614	14.8	22.3	4,244
2013	259	88,860	42,680	6,360	4,601	14.0	21.3	4,170
2014	259	86,508	41,556	6,482	4,677	13.3	20.8	4,166
2015	260	85,290	41,049	6,550	4,681	13.0	20.1	4,24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학교 수 계산시 분교, 폐교 제외, 교원수는 정규교원(휴직교원 포함) 및 기간제 포함

중학교

중학교 **128**개
학생 수 **50,70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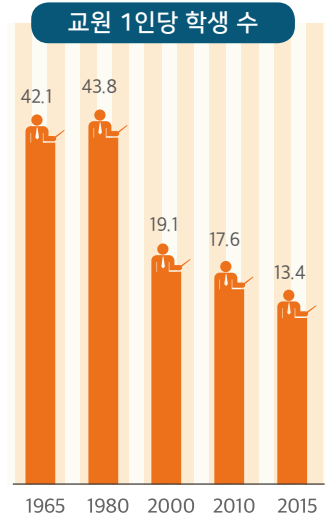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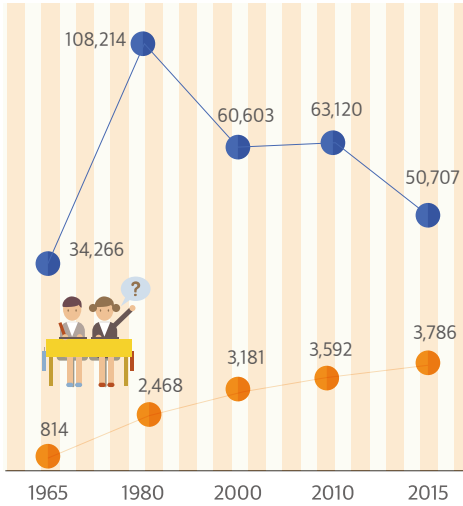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있어요

2015년 현재 도내 중학교는 128개, 학생수 50,707명, 교원 3,786명, 학급 수는 1,844교실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1966년 66개교에서 2배 가량 증가한 128개교로 집계되었으나, 2010년 132개교에서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42.1명에서 13.4명으로 감소하였고, 학급당 학생수도 50.8명에서 27.5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초등학교와 달리 남성 교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남성 교원 비중이 감소해 여성 교사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65년(12.3%)에 불과하던 여성 교사 비중이, 1970년(13.3%), 1980년(29.0%), 1990년(36.4%), 2000년(46.8%)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25.5%)로 여초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63.1%)로 여초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 학생 수 ● 교원 수



단위 : 개교, 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계	여	계	여			
1965	66	34266	10746	814	100	42.1	50.8	675
1970	87	55,241	17,966	1,262	168	43.8	58.6	943
1980	105	108,214	50,323	2,468	716	43.8	60.2	1,798
1990	109	78,070	38,195	3,359	1,223	23.2	48.4	1,613
1995	114	79,202	38,885	3,719	1,451	21.3	45.0	1,761
2000	115	60,603	29,120	3,181	1,488	19.1	39.0	1,553
2005	123	61,447	28,817	3,587	1,914	17.1	32.2	1,906
2010	132	63,120	30,094	3,592	2,103	17.6	31.8	1,986
2011	131	61,590	29,446	3,754	2,238	16.4	31.1	1,978
2012	130	59,452	28,610	3,749	2,252	15.9	30.6	1,944
2013	127	57,623	27,488	3,797	2,296	15.2	30.0	1,921
2014	128	54,970	26,277	3,857	2,376	14.3	29.0	1,897
2015	128	50,707	24,166	3,786	2,389	13.4	27.5	1,84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학교 수 계산시 분교, 폐교 제외, 교원수는 정규교원(휴직교원 포함) 및 기간제 포함

고등학교

고등학교 **83**개
학생 수 **56,227**명



중학교와 달리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등 다양하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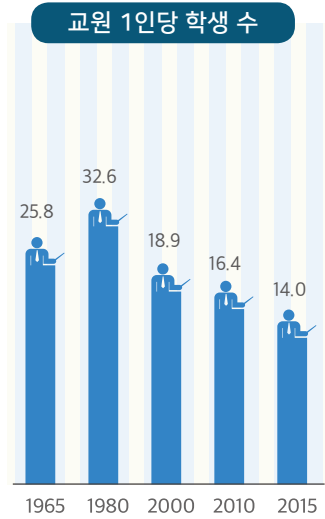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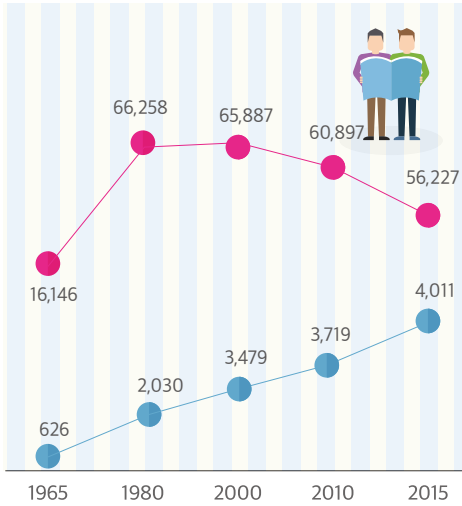
2015년 현재 도내 고등학교는 83개, 학생수 56,227명, 교원 4,011명, 학급 수는 1,848교실로 나타났다.

중학교(128)에 비해 고등학교(83) 학교 수는 작지만 학생 수와 학급 수는 대체로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학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과 같이 교육여건도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25.8명에서 14.0명으로 감소하였고, 학급당 학생수도 46.4명에서 30.4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 교원의 비중이 중등학교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65년(5.6%)에 불과하던 여성 교사 비중이, 1970년(6.0%), 1980년(13.3%), 1990년(17.8%), 2000년(36.9%), 2015년(45.3%)를 나타나고 있다.

● 학생 수 ● 교원 수



단위 : 개교, 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계	여	계	여			
1965	36	16,146	4,169	626	35	25.8	46.4	348
1970	43	21,001	6,759	770	46	27.3	55.6	378
1980	62	66,258	25,766	2,030	270	32.6	55.2	1,201
1990	67	74,697	33,904	3,322	590	22.5	51.8	1,441
1995	73	68,413	32,323	3,464	689	19.7	46.5	1,471
2000	76	65,887	31,392	3,479	938	18.9	42.0	1,567
2005	79	54,497	25,842	3,531	1,108	15.4	32.4	1,683
2010	83	60,897	28,193	3,719	1,373	16.4	33.2	1,833
2011	83	60,674	28,140	3,863	1,528	15.7	33.0	1,837
2012	84	60,067	28,093	3,948	1,617	15.2	32.6	1,844
2013	83	58,950	28,189	3,933	1,687	15.0	32.3	1,827
2014	84	57,924	27,778	4,002	1,758	14.5	31.5	1,838
2015	83	56,227	26,959	4,011	1,818	14.0	30.4	1,84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학교 수 계산시 분교, 폐교 제외, 교원수는 정규교원(휴직교원 포함) 및 기간제 포함

공공도서관 **39**개
열람석 **10,131**개

도서관!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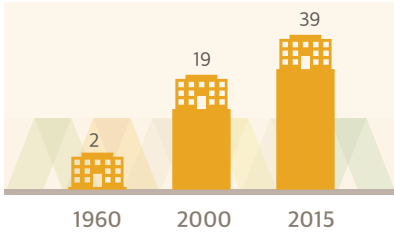
1960년 2개소에 불과했던 도내 공공도서관은 2015년 현재 19배 증가한 39개, 직원 수 172명, 열람석 10,131개, 장서 수 2,985,486개로 집계되었다.

최근들어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화인프라로서 인식되면서 도시 지역은 물론이고 시군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건립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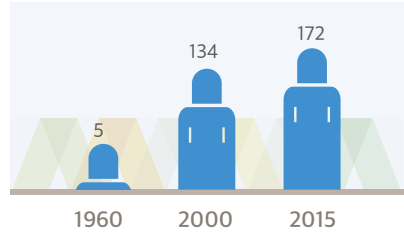
고무적인 현상은 도서관 개소 보다 질적 측면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도서관 직원 수가 5명에서 172명으로 장서수가 300만권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865개로 전국의 4.5%에 불과하며,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양적 확대와 병행해 질적 확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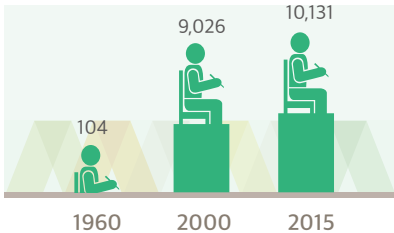
관 수(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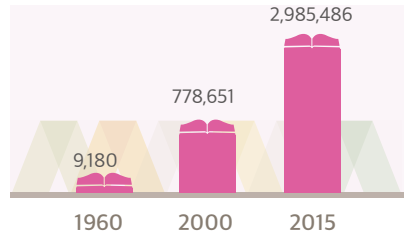
직원 수(명)



열람석 수(개)



장서 수(권)



독서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문화행사들이 도서관에서 기획 및 운영되면서
도서관이 더이상 책만 읽는 곳이 아닌 **문화인프라**로서 거듭나고 있어요

단위 : 개소, 명, 개, 권

구분	관 수(개소)	직원 수(명)	열람석 수(개)	장서 수(권)
1960	2	5	104	9,180
1970	2	18	476	41,311
1980	2	16	718	35,960
1990	3	67	3,332	127,978
1995	15	자료없음	6,912	403,954
2000	19	134	9,026	778,651
2005	23	172	8,627	1,466,174
2010	32	268	9,510	2,461,061
2013	39	342	9,494	2,959,888
2014	40	331	10,503	3,038,396
2015	39	172	10,131	2,985,486

자료 : 「충북통계연보」

문화재 **762**점
국가지정문화재 **25.9%**
도지정문화재 **74.1%**



도심 속 가까이 향유하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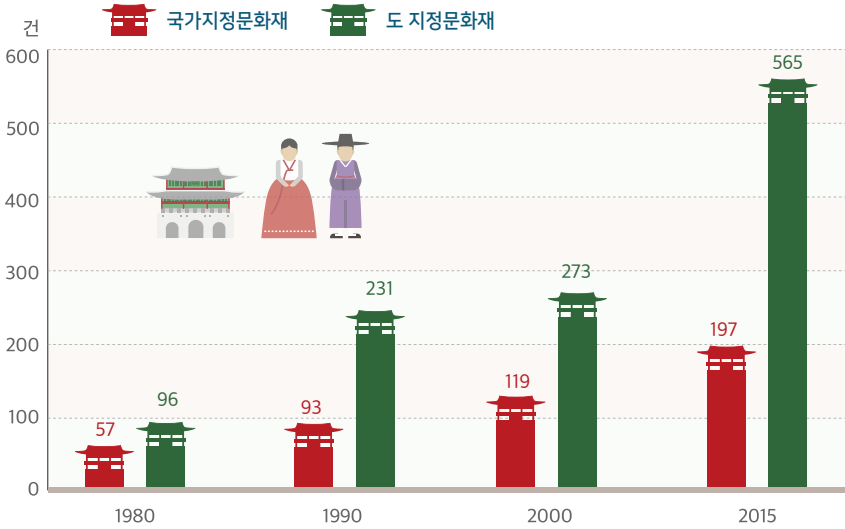
도내문화재는 모두 762점으로 1960년 24점에 비해 3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97점(25.9%), 도지정문화재가 565점(74.1%)로 나타났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는 국보 6.1%, 보물 43.1%, 사적 및 명승 14.7%, 천연기념물 11.7%, 중요 민속자료 10.7%, 중요 무형문화재 1.5%, 등록문화재 12.2%로 나타났으며, 도지정 문화재에서는 유형문화재 53.8%, 기념물 23.0%, 민속문화재 3.5%, 무형문화재 4.8%, 문화재자료 14.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북도의 문화재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각종 문화자원 자원 발굴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문화재 지정 현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제는 발굴된 문화재를 보전하고 계승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되고 있는 문화자원 발굴로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단위: 건

구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 자료	중요 무형 문화재	등록 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무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
1960	24	24	14	-	-	10	-	-	-	-	-	-	-	-	-
1970	35	35	5	16	3	11	-	-	-	-	-	-	-	-	
1980	153	57	8	27	5	15	1	-	1	96	64	32	-	-	
1990	324	93	8	33	10	21	21	0	-	231	149	64	7	-	
1995	376	97	8	34	11	21	21	2	-	264	165	85	9	5	
2000	420	119	10	46	17	23	21	2	-	273	172	85	9	7	
2005	576	150	13	73	19	22	21	2	12	364	226	109	15	14	
2010	698	190	12	80	28	23	22	3	22	508	270	118	17	22	
2013	746	193	12	82	27	24	21	4	23	553	295	127	20	27	
2014	756	194	12	82	29	23	21	3	24	562	301	130	20	27	
2015	762	197	12	85	29	23	21	3	24	565	304	130	20	27	

자료: 문화예술과, 충북통계연보